

고등학생 보충·야간자율학습과 학업스트레스, 주관적 만족감, 가출 및 자살충동 간의 관계

최준영

이 연구는 방과 후 학습과 학업 스트레스가 고등학교 청소년의 가출과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조사결과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서울과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고등학교에서 표집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의 실태와 학생들의 이로 인한 학업성적 관련 스트레스, 주관적 만족감, 그리고 가출 및 자살 충동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학교별로는 실업계보다 인문계가, 그리고 지역별로는 서울과 대도시가 중소도시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높았다.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모두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삶의 질과 관련되 주관적 만족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야간자율학습과 관련된 변인들은 가출 충동, 가출 경험, 그리고 자살 충동과도 일관성 있게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을 늦은 밤까지 반강제적으로 묶어두는 야간자율학습은 청소년들의 자유와 건전한 여가를 제한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우울감이나 자살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청소년, 보충학습, 야간자율학습, 심야학원수강, 학업스트레스, 주관적 만족감, 가출, 자살충동

1. 연구의 배경

최근 몇 년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유명 연예인이나 사회 저명 인사의 자살은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실제로 이들의 자살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중 자살은 외환위기 이후 순위가 올라가면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7,8위를 오르내리다가 2003년 5위가 된 후, 4위와 5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통계청(2008)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은 1997년 13명에서 2007년 24.8명으로 90% 상승하였으며 전체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 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12,174명으로 전체 사망자 100명중 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살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 자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살의 가장 큰 요인은 염세나 비관이 46.5%로 가장 많았다. 한 신문은 이러한 현상을 ‘자살 바이러스가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다(『중앙일보』 2008. 9. 9).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자살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1위, 그리고 10대와 40대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들 역시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자살충동을 경험한 비율이 41.3%나 된다(김순홍 외, 2007). 특히 여학생은 이 비율이 48.9%로 남학생(34.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고등학생의 50% 내외가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자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전영주·이숙현, 2000; 서혜석, 2006). 이러한 결과는 자살사고(suicidal ideation)가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자살 관련 태도가 실제 자살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은 훨씬 낮겠지만, 이러한 인지 양식이 실제적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김광수·권용신, 2005; 박현숙, 2007; Beck, Kovacs & Weissman, 1979; Thompson, et al, 2005). 아주 경미한 수준의 자살 사고도 후에 자살 위험이나 자살시도, 그리고 중독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Kumar & Steer, 1995).

청소년 가출 또한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통계청(2007)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 경험율은 2005년 9.9%에서 2006년 10.9%로 증가하였다. 가출은 청소년 개인 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상당수의 가출 청소년들이 반사회적 행동이나 일탈 행위로 빠지기 때문에 폭력, 약물남용, 윤락행위 등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정혜경·안옥희, 2001). 정혜경 등(2003)의 연구에서는 65.9%의 청소년들이 가출 충동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가출 충동 경험이 전체의 42.7%로 10명 중 4명 이상이 가출의 충동을 느꼈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가출 경험을 한 비율도 5.3%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야간자율학습·학원수강 등 심야까지 이루어지는 학습과 학업 스트레스가 고등학교 청소년의 가출과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조사결과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금년 4월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 학교장 등을 위시한 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0교시 수업, 방과 후 학교, 야간자율학습, 심야학원 수강 등 각종 정규 학습 외의 수업형태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교육의 가치보다는 현실을 중요시 하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적 노선이 교육계 전반에 적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정규 학습 시간 이후에 2-3 시간의 보충수업을 하고, 저녁 식사 이후 학교에서 적게는 2시간 많게는 4시간 정도의 심야 학습을 하게 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심야학습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심야학원 수업을 하고 밤늦게, 심지어는 새벽 1,2시에야 귀가를 한다. 특히 그간 일부 지역의 고교에서만 시행되어왔던 심야학습은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 형태의 '반자율학습'을 강요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야간 자율학습의 문제점은 그것이 강제적이라는 것 이외에도 온 종일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틈도 없이 학교에서 식사를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학습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는 점, 너무

늦게 귀가하고 다음 날 일찍 등교하면서 생기는 수면 시간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대도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야자'(야간자율학습)를 하는데, 1/2 학년은 9시까지, 3학년은 10시까지 학교에 붙잡아 둔다. 어떤 학교는 밤 12시가 되어야 아이들을 풀어준다. 여기에 더하여 많은 학생들이 학교가 끝난 이후에 심야학원에서 수업을 한다. 대도시의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한 교사의 표현은 이와 같은 야간자율학습의 모순을 솔직히 표현하고 있다. '아이들은 하기 싫어하고, 선생은 조용히 시켜야 하니 매를 들고 아이들을 때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학교인가, 감옥인가, 비극인가, 희극인가(강동수, 1996).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옹호하는 논리들도 있다. 다른 학교가 하는데 우리만 안하면 학부형들이 가만 있겠는가, 어차피 학교에서 일찍 나가면 독서실이나 과외학습을 통해서 다시 공부하는데 차라리 학교에 있는 것이 돈도 싸게 들고 안전하다, 부잣집 아이들처럼 과외를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야 한다, 교육의 형평성에 이바지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확실히이고 강제적인 심야 학습이 만연되면 억지로 잡혀서 공부하는 척해야 하는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가중될 것이 뻔하고 이에 따른 불만감이나 무력감이 심화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영향에 민감해지기 쉽다.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고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여 문제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학업성취와 관련한 학업스트레스가 우리나라 각종 청소년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김명자 등, 2002).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과 이에 따른 교사들의 입시열이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학업스트레스와 가출 및 자살 충동과의 연관성도 수시로 보고되고 있다(정혜경·안옥희, 2001; 정혜경 등, 2003; 서혜석, 2006). 문경숙(2006)에 의하면 국가간 비교연구(Lee & Larson, 2000; 최원기, 2004), 4대 일간지(조선·중앙·동아·한국)의 청소년 자

살기사 분석(김기환·전명희, 2000) 등에서도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 자살의 주요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한다.

위의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학업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 소위 학업스트레스는 자살충동, 가출 등과 큰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충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 및 심야학원 수강 등과 관련하여 이러한 변수들을 직접적으로 설문한 경우는 드물었으며, 전국단위의 표집을 통한 조사 또한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성적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주관적 만족감 등이 가출충동, 가출경험, 자살충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2. 자료수집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사회조사연구소가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시한 ‘청소년 심야학습에 관한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일반고 및 실업고 학생 2,838명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다단계무선층화집락 표집(multi-stage stratified random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지역구분시 서울시는 그대로, 광역시는 대도시로 분류하고, 보통 도시는 중소도시로 분류하였다. 도농통합형 시의 경우 ‘동’ 지역만 ‘중소도시’로 분류하였다. 경기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과천시, 부천시, 수원시, 안양시, 고양시 일산구, 성남시 분당구는 ‘대도시’로 분류하였다. 표본오차의 최대허용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83\%$ 이며, 분석에서 무응답자는 항목별로 제외하였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응답자수	%
전체	2,838	100.0
성별		
남자	1,508	53.1
여자	1,330	46.9
학교		
일반고등학교	2,125	74.9
실업고등학교	713	25.1
지역		
서울	638	22.5
대도시	1,097	38.7
중소도시	1,103	38.9

3. 조사결과

1) 청소년이 학업 성적 때문에 받는 심리적 압박: 학업 스트레스

먼저 학생들이 학업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살펴 보면, 전체 응답자의 75.5%가 학업성적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고 답하였다. 4명중 3명꼴로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셈이다. 다음으로 성적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그들이 부모나 교사로부터 어느 정도 학업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가를 4점 척도로 물었다. 이 학생들 중 67.4%가 교사로부터 학업성적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고 대답했다(심하게 받는다 14.1%, 약간 받는 편이다 53.3%). 부모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78.7%(심하게 받는다 23.2%, 약간 받는다 55.5%),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21.3%로 나타났다.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나 교사로부터 학업 성적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으며, 부모로부터의 압박을 받는다는 비율이 교사로부터의 압박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 이 차이는 부모의 압박이 심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무려 23.2%로 교사의 경우(14.1%) 보다 월등한 것에 기인한다.

<표 2> 학업성적 때문에 받는 심리적 압박(%)

	합계		심하게 받는다	약간 받는 편	거의 받지 않는 편	전혀 안받는다
	%	응답자수				
학업관련 심리적압박	100.0	2,724	75.5		24.5	
교사에게 받는 심리적압박	100.0	2,083	14.1	53.3	22.0	10.6
부모에게 받는 심리적압박	100.0	1,993	23.2	55.5	14.4	6.9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을 사회인구학적 변인 별로 보면 먼저 여학생(81.1%)이 남학생(70.5%)보다 높았으며, 일반고(인문계)의 학생들(85.7%)들은 실업고 학생들(45.1%)보다 학업성적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82.4%, 대도시의 84.0%, 중소도시의 62.8%가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고 응답하여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 학생들이 중소도시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적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 비율이 20% 가량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두 대학입시와 관련한 학업 스트레스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표 2>).

<표 3> 성별, 학교별, 지역별 학업성적 때문에 받는 심리적 압박(%)

	합계		학업성적 때문에 받는 심리적 압박		카이제곱 검정	
	%	응답자수	받는다	받지 않는다		
전체	100.0	2,724	75.5	24.5		
성별	남자	100.0	1,445	70.5	29.5	p = .000
	여자	100.0	1,279	81.1	18.9	
학교	일반고	100.0	2,038	85.7	14.3	p = .000
	실업고	100.0	687	45.1	54.9	
지역	서울	100.0	601	82.4	17.6	p = .000
	대도시	100.0	1,075	84.0	16.0	
	중소도시	100.0	1,049	62.8	37.2	

다음으로 청소년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도하였다(<표 4>). 예상대로 두 변수 모두 학업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보충수업을 하는 학생의 88.5%,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의 88.4%가 학업관련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두 학습 형태의 응답 비율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나중에 재론하겠지만 보충수업을 받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충수업이나 야간학습을 받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는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비율과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보충수업 49.9% vs. 50.1%; 야간학습 54.0% vs. 46.0%). 이는 방과 후에 하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모두가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4>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여부와 학업성적 때문에 받는 심리적 압박(%)

		합계		학업성적 때문에 받는 심리적 압박		카이제곱 검정
		%	응답자수	받는다	받지 않는다	
보충수업	한다	100.0	1,769	88.5	11.5	$p = .000$
	안한다	100.0	809	49.9	50.1	
야간학습	한다	100.0	1,685	88.4	11.6	$p = .000$
	안한다	100.0	926	54.0	46.0	

특히, 정규수업 이후 주로 낮에 2시간 내외로 이루어지는 보충수업과 달리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의 저녁 시간과 야간 시간을 모두 앗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따로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본 조사에서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의 문제점 1순위로 '강제적인 분위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37.5%)와 '학습분위기가 되지 않아 공부가 안된다'(24.4%)를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야간 자율학습이 청소년들의 학업관련 스트레스의 중요한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그 효율성 자체도 의문시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2) 가출 충동 및 경험과 자살 충동

가출 충동과 자살 충동을 측정하기 위해 학업 성적 때문에 가출(혹은 자살) 충동을 느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학업 성적 때문에 실제 가출해 본 적이 있는가를 물었다. 충동 경험은 '전혀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의 3점 척도로 질문하였으며(분석에서는 '있다'와 '없다'의 이항 변수로 처리하여 제시하였다), 실제 가출 경험은 '있다'와 '없다'로 질문하였다. 먼저 가출을 보면 전체적으로 42.7%가 가출 충동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제로 가출을 해 본 청소년은 5.3%로 나타났다. 타 연구에서 가출 충동을 느꼈다는 비율이 이 보다 높게 나온 적이 있으나(정혜경 등, 2003), 이는 가출 충동의 선행 변수들(성격 특성, 가정 환경, 사회환경, 친구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질문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업 성적으로 인한 가출 충동만을 물었기 때문에 낮은 응답률이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계청(2007) 조사에서도 청소년 가출 경험율이 2005년 9.9%, 2006년 10.9% 등으로 10% 내외의 수치가 나온 것에 비해 이 연구에서는 5.3%로 나온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여학생(41.0%)보다 남학생(44.3%) 가운데 학업 성적 때문에 가출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 실업고 학생들(27.6%)보다 일반고의 학생들(47.8%) 가운데 학업 성적 때문에 가출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36.6%)보다 대도시(44.9%)와 중소도시(44.1%)의 학생들 가운데 학업 성적 때문에 가출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실제 가출 경험에서도 여학생(3.6%)보다 남학생(6.8%) 가운데 학업 성적 때문에 가출했던 적이 있다고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학교와 지역은 가출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 5>).

다음으로 자살 충동을 보면 남학생(32.9%)보다 여학생(39.3%) 가운데 자살충동을 느끼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 실업고(20.3%) 보다 일반고(41.2%) 학생 가운데 자살충동을 느끼는 비율이 두 배 정도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표 5> 성별, 학교별, 지역별 기출 충동 및 기출 경험(%)

		기출 충동		기출 경험		카이제곱 검정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별	전체	42.7	57.3	5.3	94.7	
	남자	44.3	55.7	6.8	93.2	$p = .071$ (충동) $p = .000$ (경험)
	여자	41.0	59.0	3.6	96.4	
학교	일반고	47.8	52.2	5.3	94.7	$p = .000$ (충동) $p = .905$ (경험)
	실업고	27.6	72.4	5.4	94.6	
지역	서울	36.6	63.4	4.6	95.4	$p = .002$ (충동) $p = .207$ (경험)
	대도시	44.9	55.1	4.8	95.2	
	중소도시	44.1	55.9	6.2	93.8	

일반고생들이 실업고생들보다 훨씬 많은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다(김광수·권용신, 2005; 최준영, 2007). 성별이나 학교별 차이처럼 격차가 크지는 않지만 대도시 > 서울 > 중소도시 순으로 자살충동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6>).

<표 6> 성별, 학교, 지역과 자살 충동

		합계		자살 충동		카이제곱 검정
		%	응답자수	있다	없다	
성별	전체	100.0	2,800	36.0	64.0	$p = .000$
	남자	100.0	1,478	32.9	67.1	
	여자	100.0	1,322	39.3	60.7	
학교	전체	100.0	2,800	36.0	64.0	$p = .000$
	일반고	100.0	2,097	41.2	58.8	
	실업고	100.0	703	20.3	79.7	
지역	전체	100.0	2,800	36.0	64.0	$p = .031$
	서울	100.0	631	34.9	65.1	
	대도시	100.0	1,093	39.2	60.8	
	중소도시	100.0	1,076	33.4	66.6	

3) 방과 후 수업과 학업스트레스, 주관적 만족감

최근 학계에서 삶의 질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개념 중에 주관적 만족감이 있다. 과거에 중시되던 객관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이 실제 사람

들의 삶의 질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반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삶의 질을 바로 주관적 만족감 혹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으로 규정하는 사례도 있다(김완석·김영진, 1997). 주관적 만족감이 낮은 학생일수록 삶에 대해 회의적이고 사회심리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가출이나 자살과 같은 문제 행동을 저지르기 쉽다. 매일매일 입시와 학업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게 학업 스트레스는 그들의 주관적 만족감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주관적 만족감은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이 구정한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번역한 5가지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 ① 대체로 내 생활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생활과 비슷하다
- ② 내 생활여건은 아주 좋다
- ③ 지금까지 나는 내가 원했던 중요한 일들을 성취했다
- ④ 나는 내 생활에 만족한다
- ⑤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 척도들은 주관적 만족감 측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이며 타당도와 신뢰도 면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완석·김영진, 1997; 류정희·이명자, 2007)). 대부분의 연구에서 위 항목들 간 신뢰도 계수(CKronbach's alpha)가 .80 내외로 보고되고 있는데, 본 조사의 항목 간 신뢰도 계수는 .79로 비교적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여러 연구에서 이 척도들이 단일요인으로 나타난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이 항목들의 산술평균을 취한 수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최소값 1, 최대값 5). 평균비교 결과 심리적 압박을 받는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청소년들의 학업 성적 스트레스가 그들의 주관적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두 집단을 합친 전체 평균은 2.24로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주관적 만족도는 중간값인

‘보통’(3점) 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여부와 청소년들의 주관적 만족감을 분석한 결과도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었다. 이미 <표 4>에서 보충/야간 학습과 심리적 압박(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제시하였지만, 방과 후 학습이 학업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단일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따로 주관적 만족감과의 평균 비교를 각각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예상대로 두 형태의 방과 후 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수업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주관적 만족감이 삶의 질과 동일시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은 전체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 학업성적 스트레스/ 보충수업여부/ 야간자율학습 여부에 따른 주관적 만족감

		%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F
학업 스트레스	받는다	76.3	2,065	2.15	.71	137.7 (<i>p</i> = .000)
	받지 않는다	23.7	640	2.55	.88	
보충수업	한다	66.9	1,812	2.18	.76	29.0 (<i>p</i> = .000)
	안한다	33.1	829	2.35	.81	
자율학습	한다	62.4	1,723	2.17	.75	41.0 (<i>p</i> = .000)
	안한다	37.6	951	2.37	.81	

4) 야간 자율학습 여부와 기출 및 자살 충동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와 기출, 자살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먼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 본 결과, 전체의 60.9%가 두 수업 모두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28.1%가 두 가지 모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충수업만 한다 7.4%, 자율학습만 한다 3.5%). 따라서 보충수업을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의 분석은 수업량과 참여시간이 길어서 청소년들의 심리 상태에 영향력이 크다고 사료되는 야간 자율학습 유무만을 가지고 실행하였다.

청소년의 가출충동, 가출, 자살충동은 학업 스트레스 외에도 가정환경, 사회환경, 학교환경, 교유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정혜경·안옥희, 2001; 정혜경 등, 2003; 김광수·권용신, 2005; 문경숙, 2006; 최준영, 2007). 이 연구는 방과 외 학습과 관련된 학업스트레스를 주요 변인으로 하기 때문에 설문은 '학업성적 때문에 가출/자살하고 싶은 적(또는 가출한 적) 있는지' 만을 물었다. 이 변인들과 자율학습 유무와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시도하였다(<표 8>). 교차분석에서는 가출 충동과 자살 충동에 대한 원래 응답유형인 3점 척도를 가지고 분석하였으며, 표에는 편의 상 자율학습 유무와 가출/자살 등의 행과 열의 위치를 변경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의 41.1%가 가출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가끔 33.0%, 자주 8.1%), 야간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은 34.8%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가끔 27.1%, 자주 7.7%). 자살 충동에서도 비슷한 유형이 발견되었는데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의 38.3%(가끔 31.9%, 자주 6.4%), 하지 않는 학생의 27.5%(가끔 22.0%, 자주 5.5%)가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만을 보면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이 참여 학생들의 가출 및 자살 충동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 가출 경험에서는 이 경향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의 가출 경험(5.3%)이 야간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3.7%)보다 높은 것이다($p = .03$). 현 자료상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실제 가출 경험 비율이 현저히 낮아서(4.3%; 115명) 통계적 유의미성이 떨어진다든 점, 그리고 가출 행위는 심리적 태도와는 다른 실제 행동 변수이기 때문에 단순히 심야자율학습이라는 단일 변수와 연관시키기 힘들다는 점 등을 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5) 학업스트레스와 가출 충동 및 자살 충동

위에서 보듯이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은 청소년의 학업관련 스트레스, 주관적 만족감 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나

<표 8> 야간자율학습 여부와 가출충동/ 가출경험/ 자살충동 유무(%)

		합계		야간자율학습		카이제곱 검정
		%	응답자수	한다	안한다	
가출충동	전체	100.0	2,672	100.0	100.0	$p = .004$
	전혀 없다	61.1	1,633	58.8	65.2	
	가끔 있다	30.9	826	33.0	27.1	
	자주 있다	8.0	213	8.1	7.7	
가출경험	전체	100.0	2,677	100.0	100.0	$p = .03$
	없다	95.7	2,562	96.3	94.7	
	있다	4.3	115	3.7	5.3	
자살충동	전체	100.0	2,679	100.0	100.0	$p = .000$
	전혀 없다	65.5	1,756	61.7	72.5	
	가끔 있다	28.4	760	31.9	22.0	
	자주 있다	6.1	163	6.4	5.5	

주관적 만족감이 청소년의 가출과 자살 충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정혜경·안옥희, 2001; 정혜경 등, 2003; 김광수·권용신, 2006). 문경숙(2006)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46.4%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으며, 그 첫 번째 이유로 성적비관(19.9%)을 꼽았다. 경쟁적인 대학입시와 학업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거나 제대로 된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없게 한다. 특히, 과도한 야간 자율학습은 청소년들이 학교 외의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학업 이외의 활동을 즐길 수 없게 만든다. 이는 결국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와 무기력감, 낮은 만족감과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 우울은 자살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이경진·조성호, 2004; 홍영수·전선영, 2005; 정영주·정영숙, 2007).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학업 관련 스트레스는 본인이 직접 느끼는 것도 있지만, 부모나 교사로부터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 세 가지 학업 스트레스와 가출 충동 간의 교차분석을 시도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본인의 심리적 압박감, 부모와 교사의 심

리적 압박 모두 일관되게 가출 충동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자살 충동 경험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되었다(<표 9>). 압박이 약할수록 가출 및 자살 충동을 경험한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 가출 충동을 느꼈다는 응답이 72.5%, 없다는 응답이 27.5%로 부모의 심한 압박이 청소년 가출 충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가출 충동에서는 교사로부터의 압박보다 부모로부터의 압박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자살 충동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에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교사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압박은 학업관련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응답자 수에서 차이가 난다.

<표 9> 학업성적 때문에 받는 심리적 압박과 가출/자살 충동 경험(%)

		합계		가출 충동		자살 충동		카이제곱 검정*
		%	응답자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학업성적 때문에 받는 심리적 압박	전체	100.0	2,695	42.5	57.5	35.8	64.2	p = .000
	받는다	100.0	2,046	45.7	54.3	38.5	61.5	
	받지않는다	100.0	649	32.5	67.5	27.0	73.0	
교사에게 받는 심리적 압박	전체	100.0	2,072	45.7	45.7	38.5	61.5	p = .000
	심하게 받음	100.0	293	65.9	34.1	59.4	40.6	
	약간 받는 편	100.0	1,103	47.8	52.2	37.3	62.7	
	거의 받지 않는 편	100.0	456	33.8	66.2	33.0	67.0	
부모에게 받는 심리적 압박	전체	100.0	220	32.7	67.3	28.5	71.5	p = .000
	전체	100.0	1,980	45.3	54.7	38.7	61.3	
	심하게 받음	100.0	461	72.5	27.5	58.5	41.5	
	약간 받는 편	100.0	1,097	43.0	57.0	34.6	65.4	
	거의 받지 않는 편	100.0	286	22.4	77.6	24.9	75.1	
	전혀 안받음	100.0	136	19.1	80.9			

*카이제곱 검정은 가출 충동과 자살 충동 양자 모두 p = .000로 나타나 하나로 제시하였다

4. 결론

이 연구의 결과를 토의하기에 앞서 자료의 한계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변수들에 대한 심도있는 측정이 결여된 점이 그것이다. 특히 학업스트레스, 자살충동 등과 같은 변수들은 다문항 척도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자료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할 수 밖에 없었다. 자살관련 척도는 Beck, Kovacs & Weissman(1977)이 제시한 만든 자살사고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등을 수정하여 이용하거나(정영주·정영숙, 2007), 기타 외국 학자들이 만든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서혜석, 2006). 이러한 태도 관련 변인에 단일 문항 척도를 사용할 경우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본 조사의 특성 상 한정된 시간에 전국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조사하다 보니 설문지의 길이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대부분 변수의 측정 수준이 범주형으로 제한되어 다양한 모델을 검증하는 통계적 분석을 시도할 수 없었다. 다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더라면 본 조사의 주관적 만족감처럼 등간이나 비율 수준의 복합척도를 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는 전국 조사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높임으로서 조사 결과의 외적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그간 일선 교육현장이나 학부모단체, 그리고 언론 보도 등에서 피상적으로 언급되던 보충학습과 야간자율학습 같은 변인들을 직접 설문하여 객관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다른 변인들과 연계시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들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75.5%)이 학업성적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리적 압박을 받는 학생들만 보면, 오히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부모와 교사로부터 학업 성적 압박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선생님이나 부모님과 같은 주위 대상으로의 압박은 남학생들이 더 많이 경험하나, 심리적인 압박감은 여학생

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출충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느끼지만, 자살충동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것과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남학생들은 주변의 대상으로 부더의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를 행동으로 표출하는 방식으로 가출을 택하고자 하지만, 여학생의 경우 개인적인 요소들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더 많이 느끼고 그것이 우울로 이어지고 결국 자살 충동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교유형에서는 일반고가 실업고보다 학업성적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더 많이 경험하고, 교사로부터의 심리적 압박은 일반고가 더 많이 받지만, 실업고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로부터 심리적 압박은 실업고보다 일반고가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대도시의 학생들이 중소도시가의 학생들보다 학업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다.

가출 충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느끼고, 일반고가 실업고보다, 서울 및 중소도시보다 대도시의 학생들이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나 교사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가출 충동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교사보다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심하게 받는 학생들의 가출충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부모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가출경험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실업고가 일반고보다, 서울 및 대도시보다 중소도시가 더 많았다. 가출 충동과 마찬가지로 교사나 부모의 심리적 압박이 가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충동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고가 실업고보다, 서울 및 중소도시 보다 대도시가 자살충동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나 교사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심하게 받는 경우에 자살충동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모두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적 스트레스와 높은 연관이 있었으며, 이는 다시 학생들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즉, 방과 후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

스도 높고 주관적 만족감도 낮은 것이다. 또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보면 학업 스트레스나 주관적 만족감은 학생들의 가출이나 자살 충동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연구의 결과와 연계해서 해석하면 방과 후 수업은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높이고 주관적 만족감을 떨어뜨린다.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현실 도피방법이라 할 수 있는 가출이나 자살에 대한 충동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김연중, 2005). 분석 결과 야간 자율학습은 고교생들의 가출 충동과 자살 충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말로는 자율학습이지만 실제로는 타의에 의해 강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율학습은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 외에도 이른 등교 시간과 늦은 귀가 시간, 부족한 수면 등으로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신체적 피로는 다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져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일례로 이 연구에서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4시간 이하인 학생들의 가출 경험은 16.4%로 그 이상인 학생 집단들(4% ~ 6%)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등교 시간에서도 나타났는데, 평일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 이른 학생일수록 가출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학생들과는 다른 학부모들의 인식이다. 자율 학습을 옹호하는 가장 일반적인 논리는 다른 학교는 하는데 우리 아이들만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학교 역시 자율 학습의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으나 학부형들의 비난이 두려워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러한 파행적인 수업형태를 지속할 수 밖에 없다(강동수, 1996). 더군다나 학교에서 일찍 나가면 과외를 받거나 독서실이나 학원 수강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 있는 것이 돈도 싸게 들고 안전하다는 논리도 있다. 이 모든 것이 과도한 교육결과 입시제도의 모순이라고 할 수 밖에 없지만 현재는 그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학교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교 수업 이전 및 이후에 하는 보충 수업 특히 야간 자율학습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의 삶의 장소는 학교라는 좁은 공간에 한정되어 있다. 하루 24시간의 대부분을 학교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학교란 것이 학습 외에도 학생들의 신념이나 도덕성, 원만한 교우관계 및 다양한 과외 활동의 장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학업만을 강조하는 현실에서는 학교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긴장과 스트레스를 부과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결국은 가출 충동이나 자살 충동이라는 일탈적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정혜경·안옥희, 2001; 정혜경 등, 2003).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있는가. 현재로서 당장 방과 후 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보다는 자살이나 가출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학업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경숙(2007)이 제시한 것처럼, 부모의 애착이나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자살 충동을 약화시키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스트레스가 자살 충동과 연결되더라도 부모의 사랑과 애정, 그리고 충분한 대화가 있으면 그러한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지연 등(2005)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에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자살 충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친구관계 역시 교제의 즐거움 외에도 심리적 친밀감이나 안정감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Mendelson & Aboud, 1999) 청소년의 우울감과 소외감을 줄여줄 수 있고 가출이나 일탈 같은 사회 부적응 행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박현숙(2007)은 청소년 자살사고의 보호요인으로 자아존중감, 가족의사소통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스트레스는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면서 우울과 자살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동수. 1996. “인문계 고등학교의 안타까운 화두: 보충수업,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누리미디어. 『중등우리교육』 82(12): 148-151.

- 김광수·권용신. 2005. “청소년기의 자살 인지양식에 대한 환경요인의 영향.” 『사회연구』 9: 221-248.
- 김명자·이정우·계선자·박미석·송말희. 2002. “고등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자녀의 학업으로 인한 어머니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3(2): 5-42.
- 김순홍 외. 2007. 『한국 청소년의 사회심리와 일탈행위』.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김완석·김영진. 1997. “주관적 안녕 척도: 공동생활 및 활동과의 연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1): 61-81.
- 김연중. 2005. “자살보도 권고기준과 한국신문의 자살보도 행태분석.” 『한국언론학보』 49(6): 140-166.
- 류정희·이명자. 2007.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 그 구조 및 주관적 안녕감과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4(1): 55-77.
- 문경숙. 2006.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7(5): 143-157.
- 박현숙. 2007. “청소년의 자살사고, 폭력행동 경로모형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7(6): 835-843.
- 서혜석. 2006.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관한 인과모형.” 『청소년학연구』 13(5-1): 207-232.
- 이경진·조성호. 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67-685.
- 이지연·김효창·현명호. 2005. “스트레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청소년 자살 생각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4): 375-394.
- 정영주·정영숙. 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왜해 및 친구지지 간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67-88.
- 전영주·이숙현. 2000. “청소년의 자살구상과 관련 변인 분석.” 『청소년연구』 7(1): 221-246.

- 정혜경 · 안옥희. 2001. “청소년의 기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아동간호학회지』 7(4): 483-493.
- 정혜경 · 안옥희 · 김경희. 2003.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0(2): 107-126.
- 최준영. 2007. “청소년의 집단따돌림과 자살 관련 태도.” 『사회연구』 8(2): 223-238.
- 통계청. 2007. “2007년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결과.”
- 통계청. 2008. “2007년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결과.”
- 홍영수 · 전선영. 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4): 125-149.
- 최원기. 2004. “청소년 자살의 사회구조적 원인 연구.” 『사회복지정책』 18(4): 5-30.
- 「중앙일보」 2008. 9. 9. “자살 바이러스가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
- Beck, A. T., Kovacs, M., & A. Weissman.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43-352.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S. Griffin.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Kumar, G. & R. Steer. 1995. “Psychological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5(3): 339-346.
- Lee, M., & R. Larson. 2000. “The Korean Examination Hell: Long Hours of Studying, Di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249-271.
- Mendelson, M. J. & F. E. Aboud. 1999.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in Lat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1: 130-132.

Thompson, E. A., Mazza, J. J., Herting, J. R., Randell, B. P., & L. L. Eggert. 2005. "The Mediating Roles of Anxiety, Depression, and Hopelessness on Adolescents' Suicidal Behavior."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5(1): 14-34.

최준영은 (미국)아이오와대학교(Univ. of Iowa)에서 사회심리학으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북일리노이대학교(Nothern Illinois Univ.) 사회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재직하고 있다. 연구 관심 분야는 사회심리와 청소년 문제, 지역감정 등이다.

[2008. 8. 26. 접수; 2008. 10. 1. 채택]